

# 향토은행 광주은행 2024 민생 지원 본격 가동



### 이자 캐시백 172억·자율프로그램 121억 등 293억 편성 개인사업자 2만6000명 혜택... 지난해 1조1076억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사진)이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인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에 함께하면서, 100억원의 금액을 추가 투입해 민생금융 지원에 앞장설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1일 이자 캐시백(환급) 172억원, 자율프로그램 121억원 등 총 29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에는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했다.

광주은행은 우선 오는 7일부터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대상인 개인사업자 2만

1416명에게 152억원을 1차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주이며, 부동산임대업대출·외화대출·마이뉴스 통장 외 한도대출·기타이익상실계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지난해 납부한 정상이자 중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캐시백 형태로 지급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출 자동이체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좌의 경우 매분기 익월 2024년 발생한 이자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 3936명에 약 20억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121억원의 금액이 투입되는 자율프로그램은 지

역 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그 시기 등을 평가해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이와함께 다각도의 민생지원,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광주은행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힘내라! 전통시장 특별보증'에 180억원 지원, 4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추가협약을 통해 총 225억원의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일부터 광주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448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불황 속에서 광주은행은 향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전격 다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은행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 약 4021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에 7055억원 등 총 1조 1076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을 실시 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광주은행은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고려 중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난달 새해를 맞아 열린 '202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민생금융지원 293억원 외에도 서민금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이뤄진 상생금융지원에 1조 3030억원 등 총 1조 3323억원을 편성해 지역 상생 밀착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외에도 지역 내 자금난을 겪는 중·소상공인 및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동반성장 및 지역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활동을 펼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최근 5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호남 경제인의 사랑방 '문턱 닦았다'

### 서울 용산역 '광주·전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10년 누적 방문 15만 돌파... 3조3900억원 계약

광주상공회의소가 서울 용산역에 운영 중인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사진)의 누적 방문객이 15만명을 돌파했다.

1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비즈니스 라운지는 지난 2013년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내 9개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수도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용산역 4층에 문을 열었다.

운영 후 10년 동안 약 15만명이 넘는 호남지역 경제인들이 라운지는 찾았으며, 이곳에서 약 8300여건의 비즈니스 협상이 이뤄지며 총 3조 3900억원에 계약 체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지역 3개 광역지자체가 지역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거점에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협력의 대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광주상의 설명이다.

특히 라운지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라운지 이용객은 총 2만688명으로, 전년 대비 39.2% 늘었고 회의실 이용 건수는 전년과 견줘 대비 35.8% 증가한 1588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의 재방문율도 높다. 지난해 9월에 라운지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415명 중 약 46.5%가 매일 1~5회정도 라운지를 방문한다고 응답했다.

비즈니스 라운지는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갖춘 회의실 3개와 사무·휴게공간을 갖췄고 업무용



PC와 복합기 등 사용도 가능하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호남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회의실 및 라운지 이용을 위한 예약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96-000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신세계서 럭셔리 주얼리 '티파니' 만나요

### 호남 최초 매장 오픈

광주신세계는 2일 호남 최초로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Tiffany & Co.·사진)' 매장을 본관 1층에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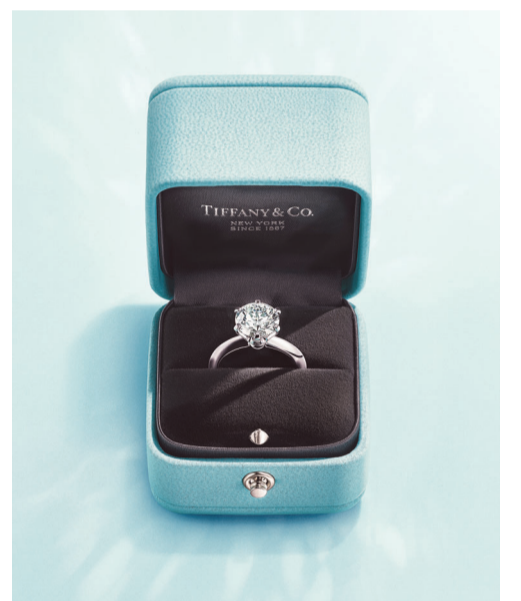
광주신세계에 들어서는 티파니 매장은 호남지역 최초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2개)과 대구, 대전에서만 운영 중이다.

매장에서는 티파니를 대표하는 다이아몬드 컬렉션과 '티파니 락', '티파니 T'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 티파니 부티크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브랜드 고유의 럭셔리함을 선사할 예정이다"며 "웨딩 주얼리를 포함한 다양한 럭셔리 주얼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루 박스와 하얀 리본이 상징적인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는 특히나 럭셔리 귀금속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티파니는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리테일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티파니는 창립 이후 186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 미국 브랜드로서 최초로 8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이후 유럽의 왕족들을 위한 주얼리 브랜드로서 세계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로 명성을 높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온누리상품권 구매 월 200만원으로 확대... 최대 10% 할인

### 광주·전남중기청, 모바일 등... 2~8일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200만원까지 높이고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월 구매한도가 올해 말까지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 상향된다.

5% 할인 혜택이 있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월 150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월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광주은행 등 16개 시중은

행에서 구매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만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비페이'와 '온누리페이' 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상품권 구매·충전용 은행계좌와 결제용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또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각 앱의 '선물하기' 기능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으며, 개인 구매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는 지류형과 달리 기업 등 법인도 기업구매 전

용 사이트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류형은 결제 시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필요하고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자동으로 반영된다.

한편, 설을 앞두고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는 오는 3~8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열리고,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행사는 2~8일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산단공 광주본부-금형산업진흥회 나눔 활동

### 설맞이 애자랍그룹 등 2개 기관에 400만원 상당 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와 1일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인근 애자랍그룹과 삼강원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진>

산단공은 한국금형산업진흥회와 애자랍그룹 등 2개 기관에 총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박희석 한국금형산업진흥회 회장은 "금형산업이 지역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해온 만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경영인으로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

며, 이웃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은 "민족대명절 설맞이를 맞아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활동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2분기부터 통신·금융채무 한번에 조정... "빠른 재기 지원"

### SKT·KT·LG유플러스·소액결제사 통신채무 대상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금융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나 문자 등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된다.

2분기부터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갖기 어려운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할 양측은 가입 여부와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바일리전스 등은 1분기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2.46(+45.37)
↓ 코스닥	798.73(-0.51)
↑ 금리(국고채 3년)	3.267(+0.006)
↓ 환율(USD)	1331.80(-2.80)